

[8월 첫째주 가정예배]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승리자

[찬송] 426 장

[예배를 위한 기도: 가족 중]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들의 실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몸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것으로, 육된 것이 영화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자화상을 그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은 동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관속에 들어가서 무의미하게 끝나 버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 이기는 하지만 구원을 외면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 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자화상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편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 지낸바 되고 함께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제는 옛 아담에서 태어난 나의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를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자화상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 성결하고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설교자] 사랑의 주님. 저희가 새로운 자화상을 갖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머리에 손을 얹고/손을 잡고]

여호와가 (자녀이름)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자녀이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자녀이름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자녀이름)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이사야 58:11).

우리의 가장 선한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이름)가 늘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참고: 지구촌 교회, 조이풀 교회

[8월의 찬양 추천]



“성도의 노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협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요케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8 월 둘째주 가정예배]

영원한 소망

[찬송] 363 장

[예배를 위한 기도: 가족 중]

[본문] 시편 119 편 49 절

[말씀]

요즘은 희망을 잃은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등에 있어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앞날을 보더라도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때이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갈급해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2 장 10 절로 11 절에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2 천년전 하나님께서 비참한 정황에 처한 인간을 마귀의 종살이에서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신 후 죄인인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마귀의 종이 된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 2 천년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청산하셨던 것입니다. 이따라서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 금세와 내세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금세와 내세의 삶을 보장받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지 모릅니다. 이보다 위대한 신분의 변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때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인이,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시요, 구원자이신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 소망과 기쁨으로 가치 있게 살아가십시오.

[기도: 설교자]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의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신데 저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가족이 되게 하옵시고, 가족이 서로 연합하여 이웃에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머리에 손을 얹고/손을 잡고]

여호와와 (자녀이름)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자녀이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자녀이름 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자녀이름)는 물 댄 동안 갈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이사야 58:11).
 우리의 가장 선한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이름)가 늘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참고: 지구촌 교회, 조이풀 교회

[8 월 셋째주 가정예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찬송] 466 장

[예배를 위한 기도: 가족 중]

[본문] 누가복음 8 장 25 절

[말씀]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성공의 비결을 터득하여 실천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삶을 실패로 이끄는 함정을 미리 피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패배하게 하는 가장 위험한 병적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마음의 불안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지속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이미 자신의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집에 돌아가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여 집안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 불평과 불만을 터뜨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곳마다 불안의 연쇄반응이 일어나고 따라서 그 사람이 관련하고 있는 일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음이 불안해질까요? 그것은 환경에 대처할 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부딪치면 마음에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을 가자고 말씀하신 뒤 피곤한 몸을 쉬시느라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호수 중간에 이르자 갑자기 물결이 높이 치솟고 강 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는 물이 넘어 들어 와서 제자들은 그 물을 퍼내느라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결은 점점 높아가고 배가 가라 앉는 것은 시간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할 수 없이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소리 쳤습니다. 그 때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곧 잠잠해졌습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을 향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믿고 돈을 믿고 자기자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 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환경에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대로 믿고 가면 될 터인데 환경을 바라본 까닭에 불안에 떨었던 것입니다 .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둘 때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불안을 느끼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설교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불안해 할 때가 많습니 다. 저희가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하시면 능력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 다. 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머리에 손을 얹고/손을 잡고]

여호와가 (자녀이름)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자녀이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자녀이름 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자녀이름)는 물 댄 등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이사야 58:11).

우리의 가장 선한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이름)가 늘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참고: 지구촌 교회, 조이풀 교회

[8 월 넷째주 가정예배]

영원한 천국으로의 초대

[찬송] 206 장

[예배를 위한 기도: 가족 중]

[본문] 유다 1 장 21 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당신께서 손수 못을 박아 죽이심으로 인간의 죄를 청산하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온 천하를 다 살펴 보아도 인류 역사상 큰 사랑을 베풀어준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인간적인 의식도 이와 같은 큰 구원의 길을 열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으로 데려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은 계속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원의 사역을 마치고 이 세상을 종결지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품 안에 안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6 장 26 절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가 주어져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이 사랑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설교자] 사랑의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머리에 손을 얹고/손을 잡고]

영호와가 (자녀이름)를 항상 인도하여 떼마른 곳에서도 (자녀이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자녀이름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자녀이름)는 물 댄 등산 갈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이사야 58:11).

우리의 가장 선한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이름)가 늘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참고: 지구촌 교회, 조이풀 교회

에드먼튼 한인침례교회에 가정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